

# 한말 淸州 德村 河東鄭氏의 학문동향

고수연\*

- 
- I. 청주 德村 河東鄭氏의 入鄕과 성장
  - II. 艮齋 田愚의 文人이 된 하동정씨
  - III. 덕촌 하동정씨의 講學活動
- 

## I. 청주 德村 河東鄭氏의 入鄕과 성장

河東鄭氏는 본관은 같으면서 시조를 달리하는 平章公派, 禮部公派, 政丞公派로 나뉜다. 이중 청주 옥산 덕촌에는 정승공파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정승공파의 1세조는 鄭鷹으로 고려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金紫光祿大夫 都僉議 左政丞 檢校太子 詹事에 이르렀다. 하동정씨 청주 덕촌의 입향조는 정승공파 중 鄭穆의 둘째아들로 조선 중종 때 副司直 忠義衛를 역임한 鄭光業(1467~?)이다. 정광업은 시조 정응으로부터 10세손으로 중종조에 己卯土禍(1519년) 등의 혼정을 피해 청주목 서강외이면 오산(현 청주시 옥산면 오산리)에 입향하였고, 그 후손이 인근인 서강외이면 덕촌(현 청주시 옥산면 덕촌리)으로 이주하여 세거하였다. 입향조인 정광업의 조부가 바로 조선전기 문신이자 학자로 文節影堂에 제향된 鄭守忠(1401~1469)이다.

---

\*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

입향조인 10세 정광업이 음직으로 부사직 충의위에 올랐고, 11세 鄭瑄(1506~?)은 봉사, 12대 鄭好智(1565~?)은 음직으로 사과를 지내다가 문과에 급제한 후 종사를 지냈다. 13대는 忠義衛 鄭儉으로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의병에 가담하여 순절하였으며, 通政大夫 軍資監正에 추증되었다. 정검의 부인 忠州池氏(1565~1592) 역시 임진왜란 때 왜군을 피해 딸과 함께 덕촌 마을 뒤 鷹峯山으로 피신하였는데 그만 왜적에게 잡혀있다. 왜적이 겁탈하려고 하자 충주지씨는 왜적을 꾸짖다가 결국 딸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14대 鄭承吉은 충의위를 지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덕촌 하동정씨는 청주의 在地土族으로서 여러 가지 문중 현양사업에 힘을 쓴다. 1796년(정조 20)에는 하동정씨 사당으로 정수충을 제향한 문절영당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1856년(철종 7)에는 정수충 영정을 중모하였다.

영정중모와 관련하여서는 1856년에 지은 『影幀重模記』(1책, 필사본)가 전해지고 있다. 『영정중모기』에 의하면 문절영정이 퇴락하여 1851년부터 1855년까지 문중에서 14,800文의 경비를 모았다. 그 뒤 마침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黃澗縣(현 영동군 황간면)에 와 있던 三嘉縣(현 합천군 삼가면)의 畫師 李德明을 초빙하여 1856년에 영정을 중모하여 사당에 봉안하였던 것이다.<sup>1)</sup>

영정을 중모하던 즈음인 1854년(철종 5)에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정검의 처 충주지씨의 열행을 널리 알려 명정을 받아낸다. 그리고 곧바로 덕촌에 정려가 세워졌다.<sup>2)</sup>

1) 현재 전해져 오는 정수충의 영정은 본래 1455년(세조 1)에 그린 좌익공신도상을 황해도 금천의 종가에서 1767년(영조 45)에 모사하고, 다시 1856년(철종 7)에 李德明이 모사한 관복 전신교의좌상의 실체본이다. 정수충 초상은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15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청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1번지에 있는 이 忠州池氏 烈女閣은 이후 1927년에 중수하고 1985년에 보수하였다. 정려 안에는 “烈婦 贈通訓大夫 軍資監正 鄭儉妻 淑人 忠州池氏之門 崇禎四甲寅月日 命旌”이라고 기록된 현판과 1931년에 후손 鄭斗絃이 지은 중수기가 걸려 있다. 충주지씨 정려각은 현재 청주시향토유형유적 93호로 지정되어 있다.

즉 1854년 충주지씨 정려 명정, 1856년 문절영당 증건과 영정 증모 등을 미루어 보면 19세기 중반 덕촌 하동정씨는 청주지역 재지사족으로 활발한 문중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중기반을 바탕으로 덕촌 하동정씨는 학문에도 힘을 써 한말에 많은 간재 전우의 문인을 배출해 내기에 이른다.

## II. 良齋 田愚의 文人이 된 하동정씨

### 1. 전우 문인록에 기록된 하동정씨

良齋 田愚(1841~1922)는 全齋 任憲晦(1811~1876)의 문인으로 人性과 物性이 같다는 견해를 가진 老論 洛論 계열의 학자이다. 1882년(고종 19) 繕工監 假監役을 시작으로 많은 벼슬을 제수 받았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자 1895년 朴泳孝 등이 守舊 학자의 우두머리로 지목하여 개화를 실현시키려면 그를 죽여야 한다고 여러 번 청했으나 고종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 1908년(순종 2)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전우는 나라를 망하더라도 道學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겠다고 결심하였으며, 부안·군산 등의 앞 바다에 있는 작은 섬을 옮겨 다니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1912년 전북 부안군 계화면 界火島에 정착하여 “중화를 잇는다”는 뜻의 ‘繼華島’라 부르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술과 제자 양성에 힘썼다.

이와 같은 그의 학문적 성격과 처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선말기 화서학과 학자인 金平默(1819~1891)은 “간재는 죽기가 무서워 의병을 일으키지 못했고, 화가 미칠까 두려워 외세를 배척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전우 자신은 정통 王權의 계승만이 국권의 회복이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제자들에게도 “눈앞의 위태함만을 알고 총칼 앞에 헛되이 목숨을 버리는 일은 옳지 못하고, 차라리 몸과 마음을 올바로 가다듬어 학문을 열심히 닦아 뜻을 편다면 어느 때인가는 우리의 힘으로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제의 탄압에 대하여는 조선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전혀 일본인을 상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처하였다. 즉, 전우는 일제 강점기에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제자 가운데에서도 개화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었다.

이같은 이념으로 한말-일제 강점기 초반 당시대를 대표한 유학자 전우의 문인으로 덕촌 하동정씨가 다수 있다. 우선 간재 문인록에 기록된 덕촌 하동정씨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간재 문인록에 기록된 덕촌 하동정씨

『良齋先生全集』 <sup>3)</sup> (1927년경 간행된 진주본)			『華嶋淵源錄』 (1963년 간행)		
觀善錄	鄭海觀	字 景于, 生年 癸酉(1873), 河東人, 文節公守忠後, 居 公州 寺谷 新永	從遊錄	鄭斗鉉 (1869~ 1940)	字 萬初, 河東人, 文節公守忠後, 居 淸州
		鄭大鉉	字 玉汝, 生年 甲戌(1874), 河東人, 文節公守忠後, 居 德節	觀善錄	鄭海觀
	鄭大鉉		字 玉汝, 生年 甲戌(1874), 河東人, 文節公守忠後, 居 德節	觀善錄	鄭泰鉉
		鄭大鉉			字 玉汝, 高宗 甲戌生(1874), 河東人, 文節公守忠後, 居 淸州

1927년 무렵 간행된 문집인 『良齋先生全集』 「觀善錄」에 덕촌 하동정씨인 鄭海觀과 鄭大鉉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963년 간행된 『華

3) 1922년 문인들이 편찬하여, 1927년 무렵 문인 오진영 등이 진주에서 간행하였다. 이 진주본을 1984년 保景文化社에서 영인하였는데, 영인할 때 觀善錄 등 附錄을 추가 수록하였다.

嶋淵源錄』 「從遊錄」에 鄭斗鉉이, 「관선록」에는 정해관·정대현·鄭泰鉉이 기록되어 총 4명의 덕촌 하동정씨가 간재문인록에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문인인 石齋 鄭斗鉉(1869~1940)의 경우 『화도연원록』 「종유록」에 기록된 문인이다. 字는 萬初이고, 鄭守忠 후손으로 淸州에 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두현의 문집 『石齋集』<sup>4)</sup> 「부록」 <家狀-鄭海珀書>과 <行狀-朴魯重狀>을 보면 간재 전우가 진친 李臣洞에 와서 강학한다는 소문이 나자 찾아가서 문인이 되었다고 한다. 『석재집』에는 정두현과 전우가 관련된 글들도 다수 기록되어 있다. 『석재집』 「詩」 <良齋先生輓詞 壬戌年(1922)>, 『석재집』 「書」 <上良齋田先生書 名愚 辛酉八月(1921)> · <上良齋先生書> · <上良齋先生書 疑上句數行遺失如也 丙申季夏七日(1896)> · <上良齋田先生書 丙申九月十三日(1896)>, 『석재집』 「祭文」 <祭良齋田先生祭文>이 그것이다.

또한 전우의 문집인 『良齋先生文集』<sup>5)</sup>에도 1917년에 전우가 정두현에게 답한 서간인 <答鄭斗鉉-丁巳(1917)><sup>6)</sup>과 정두현에게 지어준 <敬愼銘-爲鄭斗鉉作><sup>7)</sup>이 실려있다. 서간은 학문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경신명은 보통 ‘명’이 서재를 지으면 붙이라고 지어준 것이므로, 경신명과 관련된 정두현의 서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두현이 1894년 직후 덕촌서당을 건립하였으므로 그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두현은 1901년 스승 전우가 덕촌에서 강회를 열 때 주관한 인물이다. 이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본다면 정두현은 전우의 가까운 문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문인인 鄭海觀(1873~?)은 『간재선생전집』과 『화도연원록』에 모두 기록된 문인이다. 字는 景于로 정수충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

4) 『석재집』은 1962년 정해박이 간행한 『三世合稿』 내에 권2로 수록되어 있다.

5) 1927년 무렵 論山 龍洞의 鳳陽精舍에서 간행된 목판본을 저본으로 한 『한국문집총간』, 332~336쪽에 실려 있는 문집이다.

6) 『良齋先生文集』 後編 卷之三 「書」.

7) 『良齋先生文集』 後編續 卷之七 「銘」.

다. 또 『간재선생전집』에는 公州 寺谷 新永에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앞줄에 거주지 ‘德節里’가 지워져 있다. 즉, 정해관은 덕촌리에 거주하다가 문집 편찬당시인 1922년 경 공주 사곡 신영으로 이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968년 간행된 『화도연원록』에는 다시 거주지가 청주로 기록되어 있다.

『간재선생문집』에는 전우가 문인인 정해관에게 보낸 서간도 6편이 실려 있다. 즉 『간재선생문집』 前編 卷之九 「書」에 <答鄭海觀-乙未(1895)> · <答鄭海觀-丙申(1896)> · <答鄭海觀-丁酉(1897)> · <答鄭海觀-戊戌(1898)> · <答鄭海觀-己亥(1899)> · <答鄭海觀>이 차례로 실려 있다. 정해관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두현과 함께 스승 전우가 덕촌에서 강회를 열 때 주관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 문인인 鄭大鉉(1874~?) 역시 『간재선생전집』과 『화도연원록』에 모두 기록된 문인이다. 字는 玉汝이며, 정수충의 후손으로 德節에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태현 역시 『간재선생문집』에 전우가 보낸 서간 2편이 실려 있다. 『간재선생문집』 前編 卷之九 「書」 <答鄭大鉉-乙未(1895)>, 『간재선생문집』 前編續 卷之二 「書」 <與鄭大鉉-丙申(1896)>이 그것이다. <답정태현-을미>에는 ‘近日之變’ 즉 을미사변으로 혼란해진 나라를 걱정하는 내용이 실려 있으며, <여정태현-병신>에는 옛사람의 뜻을 이어 배우는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네번째 문인인 鄭泰鉉(1872~?)은 『화도연원록』에만 기록된 문인이다. 字는 敬交으로 역시 정수충의 후손이고, 거주지는 淸州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태현이 전우에게 받은 서간도 전하는데 『간재선생문집』 後編續 卷之一 「書」 <答鄭泰賢熙冕-庚申(1920)>이 그것이다. 이 서간에서는 전우가 爲學의 요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2> 전우가 덕촌 하동정씨에게 보낸 서한 목록

받는사람	문집명, 편명	서한명
정두현	良齋先生文集 後編 卷之三 書	答鄭斗鉉 丁巳(1917)

	艮齋先生文集 後編續 卷之七 銘	敬慎銘-爲鄭斗鉉作
정해관	艮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海觀 乙未(1895)
	艮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海觀 丙申(1896)
	艮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海觀 丁酉(1897)
	艮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海觀 戊戌(1898)
	艮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海觀 己亥(1899)
	艮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海觀
정대현	艮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大鉉 乙未(1895)
	艮齋先生文集 前編續 卷之二 書	與鄭大鉉 丙申(1896)
정대현	艮齋先生文集 後編續 卷之一 書	答鄭泰賢熙晁 庚申(1920)

즉 덕촌 하동정씨의 경우 총 4명이 간재 문인록에 기록되어 있고, 이들 중 특히 정두현은 전우가 서신을 보내고 서재명을 지어줄 정도로 각별했다. 정해관 역시 6편의 서간을 전우에게 받은 가까운 문인이었다. 정두현과 정해관은 덕촌(덕절)으로 전우를 초빙하여 강회를 연 인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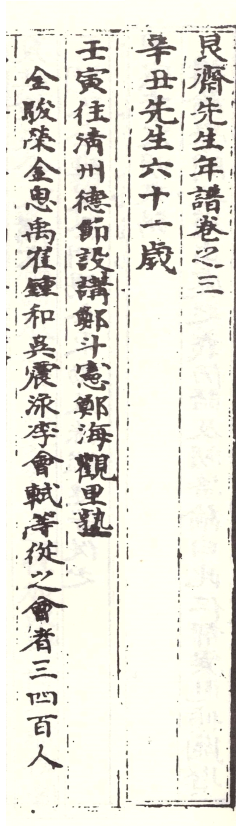
## 2. 1901년 전우의 청주 덕촌 設講

1901년 4월 7일(양력 5월 24일) 당대 상징적인 유학자 간재 전우가 직접 청주 덕촌을 찾아와서 강회를 열었다. 그 내용이 『艮齋先生全集』 「艮齋先生年譜」 卷之三<sup>8)</sup>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8) 辛丑先生六十一世

四月壬寅往淸州德節設講鄭斗憲鄭海觀里塾

金駿榮金思禹崔鍾和吳震泳李會軾等從之會者三四百人



<그림 1> 『良齋先生全集』 「良齋先生年譜」 卷之三 신축년 부분

이 기록에 의하면

신축년(1901년) 전우의 나이 61세 사월 임인일(4월 7일, 양력 5월 24일)에 전우가 청주 덕절(덕촌)로 가서 鄭斗憲<sup>9)</sup>과 鄭海觀의 동네 글방[里塾]에서 講하였다. (당시) 金駿榮·金思禹·崔鍾和·吳震泳·李會軾 등 (덕절 강회에) 쫓아 모인 사

9) 鄭斗憲이라는 인물은 『간재선생전집』은 물론 덕촌 하동정씨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鄭斗鉉의 오기로 파악된다.

람이 3~4백 명에 이르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먼저 덕절강회에 와서 모인 김준영 등 5인은 모두 정두현과 동문수학한 전우의 제자로 청주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다. 金駿榮(1842~1907)은 본관은 義城, 호는 炳菴이다. 특히 정부의 개화정책과 천주교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는 시국관을 갖는 학자였다. 金思禹(1856~1907)는 본관이 安東이며, 호는 勇菴으로, 청주 오창 主城里 인곡마을 출신이다. 崔鍾和(1859~1918)도 전우의 문인으로 덕절과 가까운 연기현 동리 태생이다. 특히, 동문 사우로부터 문장과 언사가 강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보에 의하면 1905년 경에는 '德節의 鄭氏講舍'에 우거한 바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吳震泳(1868~1944)은 본관은 海州, 호는 石農으로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출신이다. 특히 史學에 정통하였다고 전한다.

즉 정두현과 정해관이 주관하여 전우가 덕촌 동네 리숙에서 강하였는데, 5인의 전우 제자들뿐만 아니라 3~4백 명의 인물이 덕촌에서 있었던 전우의 강의를 들었던 것이다. 이 3~4백 명의 인물들은 우선 덕촌 하동정씨 문중의 자제들로 추정된다. 따라서 문인록에 기록된 하동정씨 4인 외에도 많은 덕촌 하동정씨들이 전우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순만 역시 전우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sup>10)</sup>

### Ⅲ. 덕촌 하동정씨의 講學活動

#### 1. 한말 德村書堂의 강학활동

덕촌의 하동정씨는 한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여러 방법으로 강학 활동을 전개한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덕촌서당의 건립이다. 덕

10) 김현구, 「검은전기」; 『대동공보』 1909년 5월 5일자 「정순만씨의 역사」 참조.

촌서당은 鄭斗鉉(1869~1940)이 25세이던 1894년에 같은 전우 제자인 崔鍾和와 德村里에 건립한 서당이다.<sup>11)</sup> 덕촌서당을 함께 건립한 최종화(1859~1918)는 공주목 연기현 동리 태생으로 1892년 33세 때에 전우의 문하에 들어가 경학에 전념하여 기호학파의 학맥을 잇는 신진학자로서 촉망을 받았다. 전우 문하가 된 지 2년 만인 1894년 바로 동문 정두현과 덕촌서당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1905년 경에는 ‘德節(덕촌)의 鄭氏講舍에 우거하였다’라는 기록<sup>12)</sup>으로 미루어 덕촌리에 한동안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덕촌서당에서는 정두현이 주축이 되어 하동정씨 문중의 자제들을 모아 활발하게 강학했던 것으로 보인다. 1894년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의병이 봉기하였을 때, 軍兵이 덕촌에 들어왔으나 정두현이 문중의 자제들과 강학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 ‘君子之郷’이라 칭송하고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돌아갔다는 기록도 전하고 있다.<sup>13)</sup>

요컨대, 덕촌서당의 건립은 전우가 주장한 ‘道學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스승의 뜻을 이어 정두현과 최종화가 건립한 교육기구로 파악할 수 있다.

## 2. 1906년 德新學校 건립과 운영

덕촌서당과 같은 하동정씨의 문중교육의 전통은 근대교육 기구인 德新學校로 이어진다. 「덕촌하동정씨향토지초」<sup>14)</sup>에도 ‘정두현이 1905년 전우를 만나 이미 時勢不及함을 알고 돌아서서, 이제는 서양의 신문명을 들여다가 후배인재를 양성하여 후일 국권을 회복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결심하고 1906년 족속 鄭在鳳, 족제 鄭晦鍾 등 삼과 대표와 상의하여 종재를 내어 학교를 건축하려고 다음해 1907년 1월 2

11) 姜相遠, 1962, 「덕촌하동정씨향토지초」, 『삼세합고』.

1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근현대 대전·충남 한학가의 문헌해제』, 종려나무 참조. 1905년 당시 ‘정씨강사’라는 것이 덕촌서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13) 강상원, 1962, 「在浩斗鉉海珀三代記」, 『삼세합고』.

14) 강상원, 1962, 「앞의 글」.

일 한국학부의 허가를 얻어 덕신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청년에게 신학문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두현 문집인 『석재집』의 <정두현행장>에도 '을사년(1905년)에 치욕을 보고 순국을 할 뜻을 가지고 유림을 창술하여 각 공관에 투서하고 간재선생을 찾아갔으나 이미 시세가 미치지 못함을 알고, 순국의 뜻을 접고 신학에 노력하기로 하고 종족을 창술하여 신학에 힘썼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정두현과 정회종·정재봉 등 덕촌의 하동정씨가 덕신학교 창건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때 정두현의 덕신학교 설립에 대하여 스승 전우는 반대하였다.<sup>15)</sup> 반대의 이유는 덕신학교는 덕촌서당과는 다르게 신학문을 가르치는 교육기구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두현·정회종·정재봉 등 하동정씨의 덕신학교 창건과 관련하여 주요 인물로 정순만을 들 수 있다. 정순만은 덕신학교 창건 무렵 서울에서 국권회복운동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바로 1905년 무렵 정순만은 덕촌리로 귀향하여 덕신학교 설립을 문중에 발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덕신학교 설립 발의는 정순만의 국권회복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즉, 정순만의 덕신학교 설립 발의가 받아들여져 덕촌 하동정씨의 宗財로 덕신학교가 창건된 것이다. 그러나, 1906년 무렵 정순만은 중국으로 망명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이후 덕신학교의 운영에는 덕촌의 하동정씨들이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덕신학교의 운영관련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최근 발견된 1909년에 덕신학교 2학년 재학생이던 李根佑의 <修業證書>·<褒証書>(1909년), <進級證書>(1910년), <卒業證>(1911년)을 통하여 덕신학교에 개설된 교과목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修

15) 송의섭, 1962, 「정두현비문」, 『삼세합고』.

16) 박걸순, 2016, 「정순만의 교육구국사상과 덕신학교」, 『덕은재(덕신학교) 복원 기념 학술세미나』, 14~15쪽.

身, 漢文, 地誌, 歷史, 習字, 作文, 語學(日語), 算術, 理科, 唱歌, 體操, 國語, 圖書 등 근대교육을 지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즉, 덕신학교는 덕촌서당과는 다르게 국권회복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건립된 신학문을 가르치는 근대교육기구였다.

이후 1919년 직전 덕신학교가 문 닫은 후에는 덕촌의 애오정을 통하여 하동정씨의 교육활동이 계속되었다.

### 3. 일제 강점기 愛吾亭의 강학활동

이후 일제 강점기에도 애오정을 통한 하동정씨의 강학활동은 계속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우의 문인인 정두현은 1894년 직후 덕촌서당을 통하여 한학교육을 하였으며, 31세 이던 1901년에는 전우를 덕촌으로 모셔와 강회를 열기도 하였다. 1906년 즈음에는 덕신학교 건립에도 관여했으며, 이후 덕신학교 교육에도 일정기간 참여하였다. 그리고 1919년 덕신학교가 폐교되자 정두현은 그해 바로 덕촌리 서촌마을에 愛吾亭을 건립하여 강학활동을 이어나간다. 이러한 내용이 정두현이 짓고, 卞榮寅이 쓴 ‘愛吾亭記’에 자세하다. 정두현이 지은 ‘애오정기’에 의하면

… 1919년 3월 내가 교편을 그만두고 옛집에 오니 마을에서 배우러오는 사람이 많았다. 1919년 4월에 봉우리 남쪽에 있는 본 집의 옆에 한 칸 정자를 세움에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풀을 엮으니 진실로 여러 학생들에 힘입은 바이다. 그 제도가 비록 하잘 것 없을 지라도 가운데는 십여 명이 둘러앉을 수 있다. 뽕나무 그늘이 처마를 덮고 오동나무 잎이 뜰에 가득하며, 북쪽을 바라보면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상쾌한 기운이 또한 다가오니 땅이 매우 궁벽 집에 자못 그 깨끗함을 알겠도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가에 손에는 주역 한권과 송시 몇 수를 들고 조용히 앉아 송

17) 박결순, 2016, 「위의 글」, 18~22쪽.

독하면 마음은 청정해지고 세상 근심이 사라지니 우유한 즐거움에 늙음이 장차 이름을 알지 못하였다. 어찌 도시의 복잡함에서야 이같이 한가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연히 느낀바가 있으니 지난해 와서 배운 자는 금년이 되면 먼저 물러날 것이요 오직 이 정자만이 늘상 나를 지켜주며 우뚝이 홀로 남아 있으니 그 때문에 이름하여 愛吾라 한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를 통해보면 정두현이 1919년 덕촌 서촌마을 본인의 집 옆에 한 칸 정자인 애오정을 지어 놓고 한학을 가르쳤던 것이다.

이후 애오정은 1928년 중수가 있었다. 당시 변영인이 지은 중수기에 그 정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석재 정선생은 간재 선생의 수제자였다. 은거하여 후학을 가르치니 따르는 자가 매우 많았다. 거처하시는 곳 옆에 한 칸 정자를 엮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삼으시니 … 그 정자를 중수하여 더욱 새롭게 한 사람은 아들인 해박군이다. 그 자식이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함이 이와같고 후손이 선조의 유업을 계승함이 또한 이와 같으니 이 정자가 훼손되지 않을 것을 기약할 수 있겠거니와 덕촌의 덕인이 끝없이 선조의 유업을 계승할 것이다. 중수한 때는 경진년 팔월(1928)이다.

즉, 정두현은 애오정의 강학활동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에도 덕촌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갔던 것이다. 다만 애오정에서는 덕신학교와는 달리 한학을 교육하였다.<sup>18)</sup>

이러한 정두현의 학문과 강학활동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그의 문집이다. 정두현의 아들 정해박이 1962년에 조부 鄭在浩의 『桐石集』과

---

18) 애오정은 1997년 일실된다.

賦理氣賦  
 性天受之靈判於紛離降以陳六酒儀介於上下五田時運於始終理氣集而  
 混合人物備其生々乎統然而中處與得其毋而最靈台性情盡是心与靜  
 高麗而動用湖往西之聖哲乃浩々其天乎舞下加於建表處是定而充備  
 深察人之能々寫來物欲之交蔽天理表而世益々五說之障蔽自愛之  
 附祖与主地欲與天堂嘆唐虞之遊樂与兒夷歎堯舜之禮樂今而遊實与地  
 南北而不同由主乃求人而与探泉泉而可觀理與理之兩卦若一遊而一觀  
 究玄機之紛旋若州六宮而是善假主氣而我理与靈有異乎听見六分酒與  
 容而自在与胡不辨字經象欲波造其 海天与只昇解而趨向以物歸而  
 海重与遂隨跃乎推本運心工於器用者乃研理而通神能文明而自備者直  
 小德乎形下妻德之薄々若出乎天而器器先生本於器者乃海用乃於敬  
 三欲行德而自運与德前路之不迷先俟聖而一境若相傳受善以是獨撰德  
 而不二若海若中而執覽斯理之不與若金正銘而妥適詩於斯而自樂若付  
 三事於不關心不願守操衛等對其德而撥其德也元氣之種根於斯而尚志



<그림 2> 정두현 문집 『석재집』

부친 정두현의 『석재집』 그리고 본인의 『海珀詩集』을 함께 엮어 『三世合稿』를 발간하였는데, 『삼세합고』 권2가 바로 정두현의 『석재집』이다. 『석재집』의 맨 앞에는 정두현과 교유했던 전우의 문인 春溪 宋毅燮(1865~1944)<sup>19)</sup> 이 지은 <石齋集序>가 있다. 이어서 권1에 賦 3편, 詩 42수, 詞 5편, 書 35편이 실려 있다. 권2에는 記 2편, 序 3편, 贊 1편, 說 1편, 祭文 3편, 論 1편, 墓表 4편이 실려 있다.

「詩」에는 청주지역과 <淸州文廟落成詩>·<川內遊赴作>·<玉山開碩日赴作> 등이 있다. 전우와 관련된 시 <良齋先生輓詞 壬戌年(1922)>도 전한다. 「書」에는 전우에게 보낸 <上良齋田先生書 名愚 辛

19) 宋毅燮은 한말-일제 강점기에 청주지역에서 활동한 유학자이다. 본관은 礪山이며, 호는 春溪이다. 청주 강내면 부탄리에서 1865년 宋秀一의 아들로 태어났다. 良齋 田愚의 높은 제자였다. 문학과 덕행이 진보하여 이미 20대 초반에 동문은 물론 유럽에서 존경받은 학자로 많은 제자들이 그의 문하에 모여 들었다. 저술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이 고종을 시해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일본 경찰의 추궁을 받았으나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여 물리쳤다. 『詩文雜著』 10여 권과 『東國綱鑑』 20여 권이 있다. 묘소는 청주 강내면 월탄리에 있었다가 1983년 청주 흥덕구 수의동으로 이장하였다.

酉八月(1921)>·<上良齋先生書>·<上良齋先生書 疑上句數行遺失如也 丙申季夏七日(1896)>·<上良齋田先生書 丙申九月十三日(1896)> 등이 있다. 「祭文」에도 <祭良齋田先生祭文> 등이 실려 있다.

『석재집』 맨 뒤에는 부록으로 <家狀>·<行狀>·<墓誌銘>·<石齋 鄭公墓表>·<肯石號序>·<送石齋鄭萬初之華陽洞序>·<肯石六十一壽 序>·<石齋愛吾亭重修記>·<石齋先生愛吾亭>·<愛吾亭追慕而吟>· <石齋先生畫像讚>이 실려 있다. 문집의 마지막에는 林章佑가 쓴 발문이 있다.

[논문접수 : 2016.10.20, 심사시작 : 2016.10.22, 심사완료 : 2016.10.30]

주제어 : 한말, 淸州, 德村, 河東鄭氏
------------------------

**【참고문헌】**

『三世合稿』(1962)

『良齋先生文集』(1927)

『華嶋淵源錄』(196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근현대 대전·충남 한학가의 문헌  
해제』, 종려나무.

박결순, 2016, 「정순만의 교육구국사상과 덕신학교」, 『덕은재(덕신학교)  
복원 기념 학술세미나』.

**<참고> 『艮齋先生文集』에 나오는 하동정씨  
서간 목록 및 탈초문**

받는 사람	문집, 편명	내용
정두현	艮齋先生文集 後編 卷之三 書 答鄭斗鉉 丁巳 (1917)	卿欲師我 能悉僕平生而然歟 抑憑外面虛聲而然歟 僕賦性輕駁 每檢點疵累 總是氣疾 夫君師父兄 不善事也 是氣疾 爲禮不敬 有喪不勉 聞義不服 見過吝改也 是氣疾 遇事不思 爲善不力 幽獨不慎 樞機不審 辭受無節 性命不能尊畏 心不自操 德不自明 諸如此之類 不勝枚舉 而都被氣字壞了 行年八十 無一善狀可以對人言者 如是者爲人弟子且不可 況可以爲人師乎 況今三官俱廢 百務皆曠 七分是鬼 縱使有學有德 不能與人講授 爲人模範矣乎 無以則有一焉 宜以要訣小學爲基礎 語, 孟, 庸, 學成宮室 其他聖賢書 皆以爲目下酬應之助 則庶幾能事畢矣
	艮齋先生文集 後編續 卷之七 銘 敬慎銘 爲鄭斗鉉作	反苟爲敬 心眞爲慎 苟則不敬 假則非慎 事勿放過 志無虛僞 誠能持此 對帝無愧 反苟爲敬 出呂氏呻吟語 心眞爲慎 出六書精蘊 以誠持心爲敬 出宋子大全畏齋記
정해관	艮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海觀 乙未 (1895)	曩者孟士幹 令鄭德景 讀太極圖說 余病其陵節已甚 昨見賢者看近思錄 亦令且自二卷以下理會 蓋學不厭卑近 卑近則切實 切實自高遠 切實而高遠者 更無弊病 朱子嘗言 程門高弟 如謝上蔡 游察院楊龜山輩 下梢皆入禪學去 必是程先生當初說得高了 他們只見上一截 少下面著實功夫 故流弊至此 我國鮮有爲禪學者 但恐始因理會性與天道 終至流落虛見高談 而於實處工夫 竟靠不得 此不可不深慮也
	艮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海觀 丙申 (1896)	理之冲漠 非惟本體爲然 雖是流行之用 亦何曾有朕來 更詳味之 可見也 光明不昧 終是帶得氣分 非可言於理體者 此須子細究觀 所示世儒云云 此只是私意 未足與辨也 聖賢於患難之際 固應先見豫避 巽言遠害 若到萬分極地 無可如何 則曷可自諉我是聖人 豈當殺身云爾乎 故晦翁嘗言 使文王死羨里 孔子死於匡 亦是正命 只以此決之 彼區區挾私之說 不攻而自破矣 所論講論省克一段

	<p>甚仰近日進學之功 大抵求簡是處 纔是實格致 循簡是處 纔是實踐履 學者於這一字 常常覷得不走失 踏得不違離 則所謂太極性命之理 中和位育之妙 即便在我而不歸於虛見矣</p>
<p>良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海觀 丁酉 (1897)</p>	<p>周制改月改時與否 古今諸儒所論紛然 惟杜預直主改月改時之說 仇滄洲嘗問於黃黎洲 謂杜說不易 蓋主改月改時之說 則以長曆推算春秋日食 時日相合者 居十之九 若主時月俱不改之說 則推算竟無一合 此非可以空言辨駁者 仇氏又曰 胡氏夏時冠周月之說 上誣聖人 擅改周制 僭王甚矣 又何以正天下之僭竊耶 尤不足據 據此則來諭云云 無乃未考而輕發者耶 非惟仇黃二家如此 朱子亦然 語類問 春秋書王正月 是以十一月爲春 如何曰 然 天時參差 自是周制 夫子不敢擅改王制 但如此書 而其對顏淵 發此言 則人見得合用夏時方與天時當對 此是夫子微意 又曰 據今周禮 有正月 有正歲 則周實改作春正月 夫子所謂行夏之時 只爲佗不順 欲改從建寅 故文定說夫子以夏時冠月 以周正紀事 而朱子言其便不敢信 愚自少時 只主併改時月之說 至今四十年無變動 以故於來諭之云 不敢苟從也</p>
<p>良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海觀 戊戌 (1898)</p>	<p>所論輕重本末 甚善甚善 一士友說 亦不爲無理 但以持敬窮理爲空言 則謬妄大矣 至於天文地理 兵筭占筮之屬 力量可及 則無不可理會 但以此爲經濟之務 則極爲可笑 如某人兄弟 天文筭數 亦嘗理會 而出仕於逆臣擅柄之日 又使其子 剃頭而爲鴟舌之學 甚矣 學不可以不務本也 孔子何等明睿 如世間事務 無不周知 今日以小小才氣 便欲學佗許多知見 而至於孔子平日所憂學之不講 德之不修 聞義不能徙 不善不能改之類 則棄而不治 此所謂未學行先學走也 朱子有自了學問 倒了功夫兩說 一見語類訓陳淳門 一見語類論易鼎卦處 試詳考之如何 朱子又嘗戒好語事功者云 今不知學底 佗心雖放 猶放得近 今公雖曰知爲學 然卻放得遠 少閒會失心去 此不可不覺 亦見語類訓沈僩處 賢者既知彼誤 卻要先本後末 循序漸進 可也 若只要獨善便了 又真是無用之學 亦不可不戒也</p>

	<p>良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海觀 己亥 (1899)</p>	<p>曾子終不以世道自任之疑 恐不然 所謂任道 非有特地出身奮力擔夯之法 只於身心教學 務合道義 此便是任道之本 自是而得君 則舉而措之天下國家耳 尤翁答打愚書 所論亦有此意 而今記不起可歎</p>
	<p>良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海觀</p>	<p>繼禰之宗無子 則以兄弟之子爲子 繼祖之宗無子 則以從兄弟之子爲子 無兄弟之子故耳 推而至於繼曾祖繼高祖之宗 亦當以此例之 此恐爲天理之至 人倫之正 但未知其高祖以下皆獨子 僅僅相承而今將絕焉 則當何以爲之後乎 且未知其繼十代之宗 自高祖以下 又如右之所陳者 亦不可泛求於遠族 遠族 亦以同十代以下言 以爲之後乎 高祖以下 止 何以爲之後 非人力所能與也 若闕狹於此 又成後世泛及之弊矣 繼十代宗孫無子 則亦當求之於同十代以下同宗支子 可也</p>
<p>정대현</p>	<p>良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大鉉 乙未 (1895)</p>	<p>近日之變 或言有親者難自擅 此無識之論 決不可從 將爲善 思貽令名必果 親沒猶然 況有親在堂 可以羞恥奉累耶 如可辟則辟之 辟之不得則有死而已 此非不念吾親 正恐辱吾親耳 祝髮是夷俗 非聖人之法 士子之敬以存心 義以守身者 曷可苟從而曰吾有親 未敢自擅矣乎 古人臨亂 有負君親投水者 蓋恐爲賊所辱耳 于君親且然 況于自身乎 此是大義所繫 想君已有定筭 區區老懷 未能自己敬此告</p>
	<p>良齋先生文集 前編續 卷之二 書 與鄭大鉉 丙申 (1896)</p>	<p>嚴敬以存心 則神明安其則而欲無自生 矩規以範身 則耳目守其官而物無從引 此古人之意而學者之所宜深體也 昨夕 左右自言多忘不記 蓋忘多是懈怠泛忽所致 須將敬字 外內防檢 使此心 常如居燒屋之下 坐漏船之上 則雖欲忘之 不可得矣</p>
<p>정대현</p>	<p>良齋先生文集 後編續 卷之一 書 答鄭泰賢熙晷 庚申 (1920)</p>	<p>爲學之要 惟在事事審究其是 決去其非 積累久之心與理一 自然所發 皆無私曲 按此便是聖人地位 聖人應萬事 天地生萬物 直而已矣</p>

<참고> 『艮齋先生文集』에 나오는 하동정씨 서간 원문

1. 『艮齋先生文集』 後編 卷之三 「書」 <答鄭斗鉉 丁巳(1917)>

答鄭斗鉉丁巳

卿欲師我能恣僕平生而然歟抑憑外面虛聲而然歟僕賦性輕駁每檢點疵累總是氣疾夫君師父兄不善事也是氣疾爲禮不敬有姿不勉聞義不服見過吝改也是氣疾遇事不忠爲善不力幽獨不慎禮機不審辭受無節性命不能尊良心不自操德不自明諸如此之類不勝枚舉而被氣字壞了行年八十無一善狀可以對人言者如是者爲人弟子且不可況可以爲人師乎況今三官俱廢百務皆曠七分是鬼縱使有學有德不能與人講授爲人模範矣乎無以則有一焉宜以要設小學爲基礎語孟庸學成宮室其他聖賢書以爲目下酬應之助則庶幾能事畢矣。

2. 『艮齋先生文集』 後編續 卷之七 「銘」 <敬慎銘 爲鄭斗鉉作>

敬慎銘爲鄭斗鉉作

反苟爲敬心眞爲慎苟則不敬假則非慎事勿放過志無虛偽誠能持此對帝無愧反苟爲敬出呂氏呻吟語心眞爲慎出六書精蘊以誠持心爲敬出宋子大全與齋記

3. 『艮齋先生文集』前編 卷之九「書」 <答鄭海觀 乙未(1895)>

艮齋集 前編卷九 書 五十六  
 答鄭海觀 乙未  
 曩者孟士幹令鄭德景讀太極圖說余病其陵節已甚昨見賢者看近思錄亦令且自二卷以下理會蓋學不厭卑近卑近則切實切實自高遠切實而高遠者更無弊病朱子嘗言程門高弟如謝上蔡游察院楊龜山輩下梢皆入禪學去必是程先生當初說得高了他們只睥見上一截少下面著實功夫故流弊至此我國鮮有為禪學者但恐始因理會性與天道終至流落虛見高談而於實處工夫竟靠不得此不可不深慮也

4. 『艮齋先生文集』前編 卷之九「書」 <答鄭海觀 丙申(1896)>

答鄭海觀 丙申  
 理之冲漠非惟本體為然雖是流行之用亦何曾有朕來更詳味之可見也光明不昧終是帶得氣分非可言於理體者此須子細究觀  
 所示世儒云云此只是私意未足與辨也聖賢於患難之際固應先見豫避惡言遠害若到萬分極地無可如何則曷可自誘我是聖人豈當殺身云爾乎故晦翁嘗言使文王死姜里孔子死於匡亦是正命只以此沒之彼區區挾私之說不攻而自破矣  
 所論議論首克一段甚仰近日進學之功大抵求箇是處纔是實格致循箇是處纔是實踐履學者於這  
 艮齋集 前編卷九 書 五十七  
 一字常常顯得不走失踏得不遠離則所謂太極性命之理中和位育之妙即優在我而不歸於虛見矣

5. 『良齋先生文集』前編 卷之九「書」 <答鄭海觀 丁酉(1897)>

答鄭海觀 丁酉

周制改月改時與否古今諸儒所論紛然惟杜預直  
主改月改時之說仇滄洲嘗問於黃黎洲謂社說不  
易蓋主改月改時之說則以長曆推算春秋日食時  
日相合者居十之九若主時月俱不改之說則推算  
竟無一合此非可以空言辨駁者仇氏又曰胡氏夏  
時冠周月之說上誣聖人擅改周制僭王甚矣又何  
以正天下之僭竊耶尤不足據據此則來諭云云無  
乃未考而輕發者耶非惟仇黃二家如此朱子亦然  
語類問春秋書王正月是以十一月為春如何曰然  
天時參差自是周制夫子不敢擅改王制但如此書  
而其對顏淵發此言則人見得合用夏時方與天時  
當對此是夫子微意又曰據今周禮有正月有正歲  
則周實改作春正月夫子所謂行夏之時只為他不  
順欲改從建寅故文定說夫子以夏時冠月以周正  
紀事而朱子言其便不敢信愚自少時只主併改時  
月之說至今四十年無變動以故於來諭之云不敢  
苟從也

6. 『良齋先生文集』前編 卷之九「書」 <答鄭海觀 戊戌(1898)>

答鄭海觀 戊戌

所論輕重本末甚善甚善士友說亦不高無理但  
以持敬窮理為空言則謬妄大矣至於天文地理兵  
算占筮之屬力量可及則無不可理會但以此為經  
濟之務則極為可笑如某人兄弟天文算數亦嘗理  
會而出仕於逆臣擅柄之日又使其子剃頭而為鳩  
舌之學甚矣學不可以不務本也孔子何等明睿如  
世間事務無不周知今日以小小才氣便欲學佗許  
多知見而至於孔子平日所憂學之不講德之不修  
聞義不能徙不善不能改之類則棄而不治此所謂  
未學行先學走也朱子有自了學問倒了功夫兩說  
一見語類訓陳淳門一見語類論易鼎卦處試詳考  
之如何朱子又嘗戒好語事功者云今不知學底佗  
心雖放猶放得近今公雖曰知為學然卻放得遠少  
間會失心去此不可不覺亦見語類訓沈澗處賢者  
既知彼誤卻要先本後末循次漸進可也若只要獨  
善便了又真是無用之學亦不可不戒也

7. 『艮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海觀 己亥(1899)>

答鄭海觀 己亥  
 曾子終不以世道自任之疑恐不然所謂任道非有  
 特地出身奮力擔夯之法只於身心教學務合道義  
 艮齋集 前編卷九 書 辛九  
 此便是任道之本自是而得君則舉而措之天下國  
 家耳尤翁答打愚書所論亦有此意而今記不起可  
 歎

8. 『艮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海觀>

答鄭海觀  
 繼禰之宗無子則以兄弟之子為子繼祖之宗無  
 子則以從兄弟之子為子無兄弟之子故耳推而至於繼  
 曾祖繼高祖之宗亦當以此例之此恐為天理之  
 至人倫之正但未知其高祖以下皆獨子僅僅相  
 承而今將絕焉則當何以為之後乎且未知其繼  
 十代之宗自高祖以下又如右之所陳者亦不可  
 泛求於遠族遠族亦以同十代以下言以為之後乎  
 高祖以下止何以為之後非人力所能與也若闕狹  
 於此又成後世泛及之弊矣繼十代宗孫無子則亦  
 當求之於同十代以下同宗支子可也

9. 『艮齋先生文集』 前編 卷之九 「書」 <答鄭大鉉 乙未(1895)>

答鄭大鉉 乙未

近日之變。或言有親者難自擅。此無識之論。淺不可從。將高善。患貽令名必果。親沒猶然。况有親在堂。可以羞恥奉累耶。如可辟則辟之。辟之不得。則有死而已。此非不念吾親。正恐辱吾親耳。祝髮是夷俗。非聖人之法。士子之敬以存心。義以守身者。曷可苟從而曰。吾有親。未敢自擅矣乎。古人臨亂。有負君親投水者。蓋恐為賊所辱耳。于君親且然。况于自身乎。此是大義所繫。想君已有定筭。區區老懷。未能自己敬此告。

10. 『艮齋先生文集』 前編續 卷之二 「書」 <與鄭大鉉 丙申(1896)>

與鄭大鉉 丙申

嚴敬以存心。則神明安其則而欲無自生。矩規以範身。則耳目守其官而物無從引。此古人之意。而學者之所空濛體也。昨夕。左右自言多怠。不記。蓋怠。多是懈怠。泛忽所致。須將敬字。外內防檢。使此心。常如居燒屋之下。坐漏船之上。則雖欲怠之。不可得矣。

11. 『良齋先生文集』 後編續 卷之一 「書」 <答鄭泰賢熙冕 庚申(1920)>

事。天地生萬物。直而已矣。	心與理一。自然所發。皆無私曲。 <small>按此便是聖人地位。</small> 聖人應萬	良齋集 後編續卷一 書 十六	為學之要。惟在事事審究。其是。沒去其非。積累久之。	答鄭泰賢熙冕。庚申。
				〇庚申。